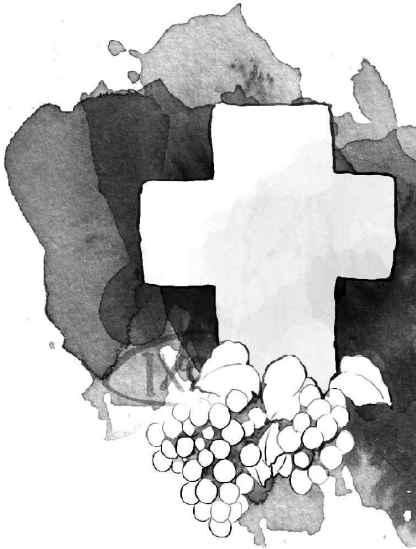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려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사순절 순례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늘 우리의 고민과 고통은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보다 컸습니다. 일상과 자아에 묶여 무뎠어진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그날의 고통을 80년이 넘도록 짊어지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십시오. 속히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그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마태5:10 인도자
- ▲ 교 독 문 129. 종려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이형숙 권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139.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다 함께
- ▲ 성경봉독 롬 5:12-15 I. 인도자
II. 신영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봉독자
..... 다 함께
- 찬 양 맞으라 왕의 왕 찬양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주님이 오시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네 온 인간의 머리되사 왕의 왕이 되시어

종려나무 꺾어 들고 나귀타고 오시는 이
 왕의 왕이 오시도다 뛰어가서 경배하세
 온 인간의 머리되사 왕의 왕이 왕의 왕이 왕의 왕이 되시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왕 중의 왕이 오시도다
 경배하라 엎디어라 왕 중의 왕이 오시도다
 왕 중의 왕 오시도다 왕 중의 왕 오시도다
 온 인간의 머리되사 죄짐을 맡으신 주 십자가 고난의 주
 가시면류관 쓰시고 인간의 죄 사하시니 왕의 왕이 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결국 문제는 한 사람이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결국 문제는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죽음과 어둠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그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나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 함 께: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담의 뒤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운동주의 십자가

한국의 어느 시인이 유럽에서 열린 시낭송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시낭송을 들은 한 독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시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대답하게 된 것은, 문득 한국의 밤하늘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떠 있는 십자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흉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던 형틀이자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제국이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던 처형 도구가 아니던가요. 예수 역시 로마 세력과 거기에 빌붙은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눈엣가시로 여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숭고한 정신을 받든다는 교회는 십자가의 참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솔직히 회의가 생깁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 교회가 소수의 가진 자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미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금관의 예수>라는 희곡을 무대에 올려, 예수의 정신을 상실한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교회. 그는 그런 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 배 불릴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예수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곁으로 오신 예수, 그 ‘지극히 낮으신’분에게 고통과 희생의 상징인 가시 면류관 대신 금관을 씌워 저 ‘높은 자리’로 올려놓은 한국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했지요.

거친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퇴색해버린 예수의 정신을 복원하려 했던 이는 김지하 시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대의 도도한 물결에 죽은 물고기처럼 순응하기를 거부했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던 식민지 백성으로서 동족이 당하는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끌어안고 가려했던 아름다운 청년 운동주 시인.

그 시절에도 십자가를 매단 첩탐이 꽤 높았던 모양입니다. 첩탐 밑에서 서성거리는 시인은 한껏 고개를 쳐들고 묻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당신. 번쩍거리는 후광을 두른 ‘금관의 예수’. 아, 당신께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시인은 저 무거운 금관을 벗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시인은 침탑 밑에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흑암이 깊어만 가는 시대. 검은 잉크를 찍어 그가 종이에 쓴 글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쓴 시는 곧 ‘피로 쓴 시!’(니체)였습니다. 모름지기 이런 표현은 운동주 같은 시인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예수의 형상을 내면화한 시인에게, 십자가는 ‘허락’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가신 스승의 가르침, 곧 한 알 씨앗의 죽음 없이 새 생명을 싹 틔울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또렷이 자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십자가라는 말에 너무 쉽게 따라붙는 자기 비움, 희생, 사랑, 화해 같은 말들은 사실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는 것도 시인은 잘 알고 있었지요. 알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주는 끝내 자기를 깨뜨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스물아홉이라는 꽃 같은 나이에 이국땅 차디찬 감옥에서 겨레의 독립을 꿈꾸던 비상의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

그의 시가 지금도 몽클한 감동을 주는 까닭은 그가 독립투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 연약한 청년이 끝끝내 지켜내려고 애쓴 뜨거운 자존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빌었던 맑고 순수한 시심(詩心)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다짐에서 드러나는 뜨거운 생명애. 운동주의 시는 오늘의 우리 삶을 비춰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입니다. 운동주가 구리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한 줄의 참회록’을 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신만의 거울을 닦고 참회록을 써야겠습니다.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의 소중한 자존감마저 팽개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왜소하고 나약해진 품성에 대해. 십자가로 표상되는 예수의 사랑과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천박한 모습에 대해 참회록을 써야겠습니다.

■ 마음으로 읽는 글 ■

십자가

- 윤동주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광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교회소식 ■

1. **종려주일** :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2. **고난주간기도회** :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30 교육관에서 고난주간 기도회가 열립니다.
3. **부활주일** :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새벽예배를 드리며 새벽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 중에는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4. **교육부회의** :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교육부회의가 있습니다.
5. **오뚝이 저금통** : 이주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희망의 오뚝이 저금통'을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6.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1일(화) 오전 10시 일신교회에서 있습니다.
7. **결혼** : 김지훈 씨와 서은선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5일(토) 오후 6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8.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실천사항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눅 24:28-35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재흥	조항미

1부 영접위원	이진영	헌금위원	박숙미
4월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혜령	최은미 김민화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성실	

오늘 식당 봉사	김윤정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이현숙 백미혜 오형일 안정준
다음주식당봉사	이현순 정현선 정영혜 박진숙 임옥기 유병선 박종철 추현영
오늘설거지봉사	6여선교회(41-45) 다음주설거지봉사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중현